

고려반 학습 계획서

교재: 한국어 5-1
13과 올바른 존댓말

일 시 : 2018 년 4 월 14 일
교사 : 조 화영

교육목표: 학습 활동을 통하여 말하기,듣기,쓰기,읽기 네 영역을 골고루 사용한다.
학습목표: 한국어의 호칭과 존대말을 바르게 사용 할 수 있다.

교시	수업 활동	교재 및 자료
1 교시 9:30~10:00	출석점검/숙제검사 ■ <활동 1> 우리말 꾸러미 여러가지 뜻을 지닌 낱말 손/눈/먹다/놀다	한국어 교재 학습지(국어읽기 4-1)
2 교시 10:00~11:00 점심시간 11:00~11:20	■ <활동 2> 듣고 말하기(126 쪽) 우리나라 전래동화를 통해 말의 중요성을 배운다	한국어 교재 5-1
3 교시 11:20~12:00	■ 오전 특별 수업 <작문>	김정자 선생님
4 교시 12:00~12:40	■속담 말 한마디에 천 냥 빚도 갚는다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. 달걀로 바위치기 낮말은 새가 듣고 밤말은 쥐가 듣는다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른다.	국어활동 5-1 가 학습지
숙제	* 14 과 새로운 어휘 거센소리,기본,된소리,모음,문맹,반포,예사소리,자음,천지인,과학적이다,우수하다,본뜨다,표기하다,발성 기관,시험 사용,표음 문자,표의 문자,한글 창제,소리가 나다,획을 더하다 방학숙제 영한/한영 번역해보기	
알림장	<주요행사 안내> 5 월 5 일 제 12 회 뉴잉글랜드 한국학교 한영.영한 번역대회 5 월 5 일 : 학부모 주최 정기 봄바자회	



알맞은 높임말을 생각하며 글을 읽어 봅시다.



다음은 선생님께서 시현이네 반 친구들에게 들려주신 이야기입니다. 높임말을 써야 하는 까닭을 생각하며 ‘박바우와 박서방’을 읽어 봅시다.

박바우와 박서방

옛날, 어느 마을에 젊었을 때부터 고기 파는 일을 하던 박바우라는 노인이 있었다.

어느 날, 젊은 양반 두 사람이 거의 같은 시간에 고기를 사러 왔다. 먼저 온 양반은 박 노인에게 이렇게 말하였다.

“바우야, 쇠고기 한 근만 다오.”

“알겠습니다.”

박 노인은 건성으로 대답하며 대충 고기를 잘라 주었다. 그런데 뒤이어 들어온 양반은 깍듯하게 좋은 말투로 부탁하였다.

“박 서방, 쇠고기 한 근만 주시오.”

“아이고, 네. 조금만 기다리시지요.”

박 노인은 웃으면서 대답하고, 가장 좋은 부위의 고기를 뭉텅 잘라 주었다. 먼저 고기를 산 양



반이 가만히 보니 자기가 산 것보다 고기도 좋아 보이고 양도 훨씬 많아 보였다.

그는 박 노인에게 버럭 화를 내며 말하였다.

“야, 바우야! 똑같은 한 근인데, 어째서 이렇게 다르게 주느냐? 말 좀 해 봐라!”

박 노인이 태연히 대답하였다.

“그러니까 손님 것은 바우 놈이 자른 것이고, 이분 것은 박 서방이 자른 것이기 때문이랍니다.”



‘박바우와 박 서방’을 읽고 물음에 답하여 봅시다.

- (1) ‘바우’와 ‘박 서방’은 누구를 가리키는 말인가요?
- (2) 박 노인이 손님들에게 고기를 다르게 준 까닭은 무엇일까요?



다음 문장을 높임말을 사용하는 방법에 알맞게 고쳐 봅시다.

- 쇠고기 한 근만 다오.



- 어째서 이렇게 다르게 주느냐? 말 좀 해 봐라!



높임말을 바르게 사용하여 칭찬받았던 경험을 떠올려 봅시다. 그리고 친구들과 역할놀이를 꾸며 봅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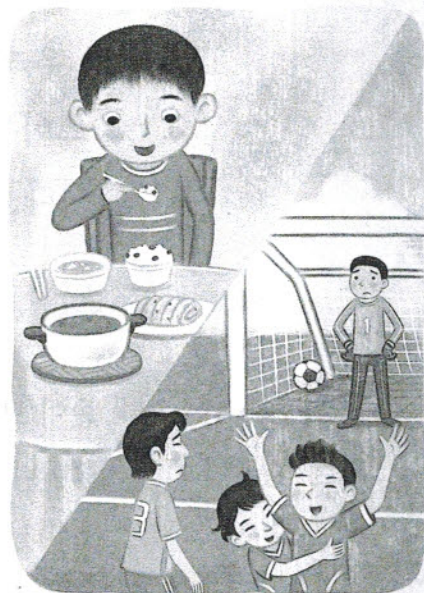
뜻으로
알아봄



먹다

음식을 먹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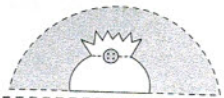
- 마음을 먹다. → 어떤 마음이나 감정을 품다.
- 나이를 먹다. → 세월이 흘러 나이가 많아지다.
- 욕을 먹다. → 꾸지람을 듣다.
- 더위를 먹다. → 더위로 병에 걸리다.
- 한 골 먹다. → 상대방에게 점수를 주다.



놀다

아이들이 논다.

- 요즈음 놀고 지낸다. → 일이 없어 한가하다.
- 저 땅은 놀고 있다. → 저 땅은 사용되고 있지 않다.
- 물속에서 물고기가 논다. → 물속에서 물고기가 이리저리 돌아다닌다.
- 한판 놀다. → 연기를 하거나 재주를 부리다.
- 윷을 놀다. → 윷을 던지거나 굴리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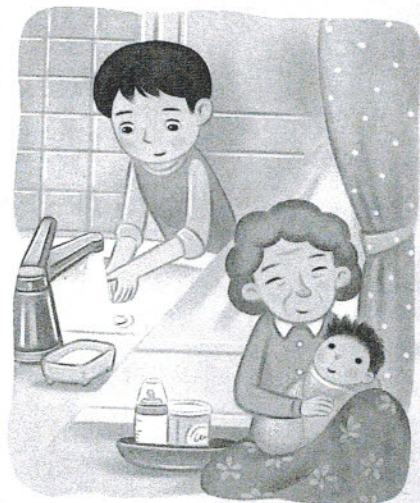
여러 가지 뜻을 지닌 낱말

- 우리말에는 원래의 뜻 외에도 상황에 따라 여러 가지 뜻으로 쓰이는 낱말이 있습니다. 다음 낱말의 여러 가지 뜻을 알아봅시다.

손

수돗가에서 손을 씻다.

- 손이 모자라다. → 일할 사람이 모자라다.
- 할머니 손에 자라다. → 할머니께서 돌보아 주시다.
- 우리 손으로 해야 한다. → 우리 힘으로 해야 한다.
- 남의 손에 넘어갔다. → 남의 소유가 되었다.



눈

눈을 감고 생각하다.

- 눈이 나쁘다. → 시력이 안 좋다.
- 눈이 높다. → 사물을 판단하는 안목이 좋다.
- 부러운 눈으로 바라보다. → 부러운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다.
- 사람들의 눈을 끌다. → 사람들의 관심을 끌다.



한국어를 영어로 번역하기

[중급] 호랑이와 꾀감



어느 해 겨울, 눈이 많이 내렸어요.

“눈이 많이 오니 먹을 게 없군.”

배가 고파진 호랑이는 먹이를 찾아 마을로 내려갔어요.

중, 고급과정 번역대회

밤이 되었어요.

호랑이는 어는 집 마당에 들어섰어요. 외양간에 매여 있는 살찐 소를 보았어요.

‘음, 맛있겠군.’

호랑이가 외양간으로 몰래 들어가는데, 아기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어요.

‘아기의 울음소리가 왜 이렇게 크지?’

호랑이는 궁금해서 집 쪽으로 살금살금 다가갔어요.

“울지 마라. 자꾸 울면 호랑이가 잡아간다.”

엄마가 겁을 주어도 아기는 울음을 그치지 않았어요.

호랑이는 놀라서 속으로 중얼거렸어요.

‘어, 내가 여기 와 있는 줄 어떻게 알았을까?’

호랑이는 이상하게 여기며 방 쪽으로 더 가까이 다가갔어요.

중, 고급과정 번역대회

“그만 울어라, 정말로 호랑이가 잡아간단다.”

그러나 아기는 더 크게 울었어요.

아무리 달래도 아기가 울음을 그치지 않자, 엄마가 말했습니다.

“곶감을 줄게. 그만 울어라.”

희한하게도 아기는 곶감을 준다는 말에 울음을 뚝 그쳤어요.

‘곶감이라고? 저 아기는 나보다 곶감을 더 무서워한단 말인가?

나보다 더 무서운 곶감이란 놈한테 잡혀 먹히기 전에 피해야겠구나.’

중급 기본	최대점수 (90)	적절한 단어 사용(15)	글의 흐름 (15)	문법 (15)	철자 (15)
30	합계:				